

텍사코사의 長期에너지展望

- 油價上昇率은 2000년까지 年 1 ~ 2 %
- 自由世界 石油依存度는 2000년까지 40%이하로 감소

지난 73년이후 세계의 原油價는 세계石油需要를 통제하는 OPEC (石油輸出機構)의 강력한 역할로 天井不知로 치솟았다.

그러나 최근 텍사코사의 長期에너지 전망에 의하면, OPEC의 이같은 엄격한 生産調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년동안은 原油價가 연율 2%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 한다.

油價와 需要의 상관관계에 역점을 둔 이 연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OPEC 油價가 73년부터 급속히 상승된 대신 55~73년과 같은 비율로 下落했다면 消費는 80년 하루 4천 9백만배럴을 훨씬 웃도는 하루 8천만배럴에 달했을 것이다.

世界 需要 *

		1960	1980	2000
		— 百万b/d —		
石	油			
가	솔	5.7	12.5	12.7
제	트	0.5	2.2	3.7
유	출	3.8	11.3	16.6
부	산	4.6	11.5	9.8
기	타	3.8	11.5	17.0
	計	18.4	49.0	59.8

		1960	1980	2000
		— 百万b/d · 石油환산 —		
天	然			
美	国	6.1	10.3	9.7
유	럽	0.2	3.5	5.8
日	本	—	0.4	1.7
캐	나	0.2	0.9	1.5
기	타	0.3	2.1	8.7
	計	6.8	17.2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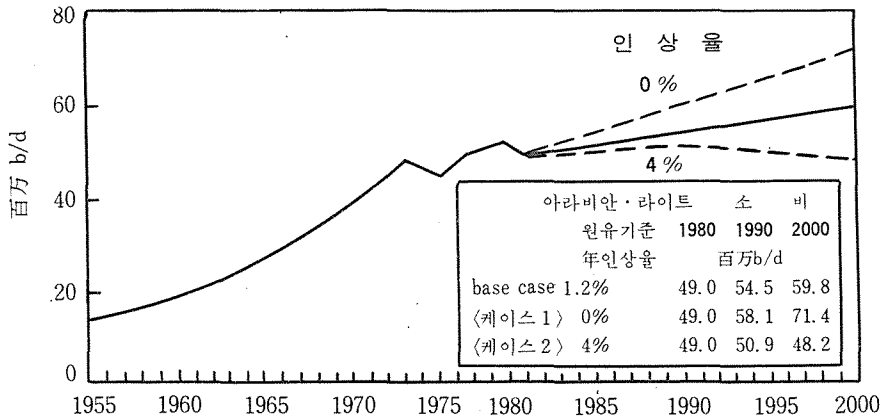
* Base Case

자료 : 텍사코

OPEC 油價가 소폭 인상에 그치면 2000년, 자유세계의 總石油需要는 하루 5천 9백80만배럴로 늘어날 것이며, 油價引上이 없다면 수요는 하루 7천 1백만배럴 이상이 될 것이다. 또 만약 油價가 연율 4%로 인상된다면 (텍사코의 예상이 빗나가서) 2000년 수요는 하루 4천 8백20만배럴에 그칠 것이다.

한편 자유세계의 總에너지수요중 石油의 비중은 80년의 52%에서 2000년에는 40%이하로 줄어들 것이며, 예상되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적어도 80년대전반에는 안정된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

世界の 石油消費 展望 (공산권 제외)



자료 : 텍사코

최근의 高油價로 인해 石油로부터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에너지轉換이 이루어지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石油消費伸張率은 적당한 비율을 보일 것이다.

消費者의 역할

油價양등뿐 아니라 燃料轉換과 消費減縮 역시 수요를 즉시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며, 모든 經濟動向 또한 석유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소비자는 小売價格 變化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단 소비자가 實質的 油價引上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한 이상, 소비를 억제키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초기에는 소비자에 의한 소비절약과 他에너지로의 전환 등으로 제한되겠지만 長期的으로는 모든 physical plant가 他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전체 에너지依存度를 낮추도록 재설계될 것이다.

需要 展望

가까운 장래에 가장 需要彈力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住宅用 燃料油이다. 실질생산가 10%인상에 대한 주택용 연료유의 소비감축은 가까운 장래에는 1~4%, 장기적으로는 4~16%에 이를 것이다.

휘발유소비는 소비자의 주행거리 단축과 carpoools 사용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1~4% 감축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의 개발과 소비자들이 개인소유차를 덜 사용하는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전향함에 따라 5~9%가 감축될 것이다. 장기 휘발유 예상모델에 따르면, 연율 10%의 實質 휘발유 引上에 따른 휘발유 消費減少는 2.3%에 이를 것이며 다른 것들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1981~2000년의 展望

● 선진공업국의 需要增加와 非 OPEC國의 生産量 증가로 OPEC의 원유수출은 하루 2천5백만배럴에 못미칠 것이다. 90년대를 통해 總生産量은 78~79년 수준인 하루 3천만배럴 이하에 머물 것이며, 그 후 하루 3천4백만배럴 정도까지 조금씩 증가할 것이다.

● 非OPEC의 原油생산량은 80년

하루 1천8백만배럴에서 2000년까지는 하루 2천3백만배럴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자유세계의 총에너지소비는 현재의 석유환산 하루 9천5백만 배럴에서 2000년에는 1억5천만배럴로 증가할 것이며, 이중에는 개발도상국의 수요증가율이 가장 커서 연율 4.5%이상에 이르고, 선진국은 이 절반이하의 증가에 그칠 것이다.

● 石炭은 2000년까지 자유세계 에너지수요중 1/4이상을 차지하고, 石油로부터의 대체도 계속될 것이다.

● 오일셀과 石炭液化에 의한 하루 2백50만배럴의 생산량은 2000년에도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天然가스소비는 美國을 제외한 자유세계 전체에서 증가하겠지만 需要率은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原子力발전은 총에너지 수요중 8%를, 水力과 기타 발전부문은 7%를 차지할 것이다.

● 石油供給은 여전히 政勢에 영향받겠지만, 소련은 필요한 外貨를 벌어들이고 安保上 에너지 依存率을 낮추기 위해 자유세계로의 net-exports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Oil & Gas Journal, Sep. 7. 1981> *

보호하자 향토문화

창달하자 민족문화